

언어적 전환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기독교언어학 관점에서의 계보적 비판*

**From the Linguistic Turn to Postmodernism:
A Genealogical Critique from Christian Linguistics**

신 동 일 (Dongil Shin)**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five paradigm shifts that have shaped the modern humanities since the twentieth century—the linguistic, critical, discursive, semiotic, and postmodern turns—and reconstructs them from a Christian worldview. Its object of analysis is not the texts of individual thinkers but the reception through which their concepts were institutionalized across the human and social sciences. These turns do not occupy a single disciplinary level; the "genealogy" offered here is therefore not a narrative of historical succession but an ideal-typical reconstruction of one logical move that recurs across otherwise unrelated points of departure. Evidence for that reception is drawn from the texts in which the theorists themselves had to repudiate the radicalized readings imposed on them. Acknowledging these turns as "common grace" for revealing language as an epistemic condition and a site of social power, the study criticizes the point at which a partial insight is expanded into a total account of language. To identify that point, it proposes four criteria: universalization, level-crossing, self-referential consistency, and principled exclusion. Building on these criteria, it distinguishes epistemological constructivism, which claims that access to reality is socially mediated, from ontological constructivism, which claims that reality is discursively produced. Only the latter is subject to critique; the postmodern turn is accordingly treated not as the sum of divergent thinkers' positions but as a common reception in which language came to occupy the place of reality. What the analysis finds in each turn is not the claims of individual theorists but the repeated collapse, in reception, of the limits those theorists themselves set. In response, the study proposes a Logos-centered Christian linguistics grounded in creation and

* 2026년 5월 9일 접수, 8월 31일 최종수정, 9월 2일 게재확정

** 중앙대학교(Chung-Ang University) 영어영문학과 교수,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shin@cau.ac.kr

incarnation—not a rival to descriptive linguistic subfields but a metatheoretical level of reflection on the presuppositions and ends of language study, one that relocates the analytic gains of these turns under the light of the Logos and directs critique toward restoration rather than dissolution. Language is a stewardship gift rather than a human construct, and is to be recovered as a gracious medium for reconciliation and shalom.

Key words: Christian worldview, linguistic turn, critical linguistics, discursive turn, semiotic turn, postmodernism, constructivism, Christian linguistics

I. 서론

현대 사회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방대한 양의 말과 글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언어의 과잉’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디지털 매체의 확산과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언어 생산의 문턱을 현저히 낮추었으며, 인간은 이제 알고리즘과 기호 속에서 쉼 없이 정보를 교환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풍요는 역설적으로 인간 존재의 이해와 사회적 합의를 가로막는다. 우리는 ‘언어의 홍수’에서 ‘소통의 가뭄’을 겪고 있다. 언어는 인간의 내면을 전달하는 중립적인 매개체로 머물지 않으며, 세계를 임의로 분절하고 특정한 가치 판단을 유도하며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배제의 장치로도 작동한다(신동일, 2022). 이러한 소통의 소외 현상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진리를 판단하는 근본 방식이 뒤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Vanhoozer(1998)가 통찰했듯, 이는 의미의 주권자를 상실한 존재론적 위기이고, Poythress(2009)가 경고한 ‘언어로부터 하나님을 배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로고스(Logos)가 침묵하고, 인간의 자율적 사유가 실재를 유배시키면서, 언어는 진리의 문을 여는 통로가 아니라 진리를 가두는 감옥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위기는 20세기 이후 인문학 전반을 관통한 이른바 ‘전환(turns)들의 연쇄’와 궤를 같이한다. 현대 사상은 언어를 외부 실재를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거울’로 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인간의 인식과 사회적 현실을 조직하는 핵심적 ‘구성체’로 이해해 왔다. 그 흐름은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가 언어를 자의적 기호들의 관계 체계로 정립하면서(Saussure, 1983) 정초되었고,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이 언어를 ‘삶의 형식’ 속에서 작동하는 규칙의 문제로 재정의하면서 인식론적 전환으로 재규정되었다(Wittgenstein, 1953).

그런 이후에도 언어 배후의 이데올로기와 지배 질서를 폭로한 비판적 언어학(critical linguistics)(Fowler et al., 1979), 언어를 사회구조를 매개하고 재편하는 역동적 실천으로 정의한 (비판적) 담론 연구((critical) discourse studies)(Fairclough, 1992), 의미의 장을 이미지, 공간, 몸짓으로 확장한 사회기호학(social semiotics)(Kress & van Leeuwen, 2021), 그리고 언어를 실재 자체를 구성하는 장으로 급진화한 포스트모던 언어관(Lyotard, 1984)으로 전개되었다. 전환적 사유는 언어의 지위에 관한 이해를 전달 수단에서 인식의 조건으로, 다시 사회적 권력으로 이동시켰으며, 그 극단에서는 실재를 대체하는 총체성으로까지 확장시켰다.

이러한 전개는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규명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나, 그 수용의 국면에서는 언어와 실재, 언어와 계시의 끈이 함께 느슨해지는 결과가 뒤따랐다. 언어가 스스로 실재를 수행하고 진리를 ‘구성’하는 장이 됨에 따라, 초월적 진리는 상대화되었고 언어는 존재의 근원을 지시하는 통로 기능을 상실한 채 기술적 도구로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Vanhoozer(1998)는 이러한 포

스트모던 해석학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신학적 위기임을 통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와 ‘하나님의 죽음’ 선언이 의미, 저자, 텍스트 개념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언어에 관한 전환적 사유는 학문적 성취이기도 하겠지만,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진리와 실재의 기반이 무너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기독교는 언어를 인간이 자의적으로 조작하는 의미 체계로 보지 않으며, 창조와 계시, 교제와 책임의 차원에서 이해한다. 언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며 창조, 계시, 피조물과의 교제를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그 근원이 인간의 사회적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소통적 존재 방식에 있다(Poythress, 2009).

Vanhoozer(2010) 역시 ‘하나님의 소통적 행위(divine communicative action)’를 신학의 핵심 원리로 정립하면서, 언어는 비인격적 인과율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과 인격적 대화를 나누시는 매개임을 논증한다. 언어는 요한복음의 로고스 선언이 함의하듯 진리와 존재를 매개하는 실재적 차원을 지닌다(요1:1-14). Thiselton(1992)이 강조한 것처럼 언어는 변혁적인 ‘화행(speech act)’으로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구성하는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현대 언어사상의 전환들은 기독교 세계관과 필연적으로 긴장을 유발한다. 다만 그 긴장이 발생하는 지점은 정확히 한정되어야 한다. 긴장은 어떤 학문이 신학적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 특정 분과가 계시를 자신의 분석 대상에서 유보하는 것은 정당한 자기 제한이며, 그것을 곧바로 계시의 권위에 대한 거부로 읽을 수는 없다. 긴장은 그 방법론적 유보가 ‘언어 바깥에는 물을 것이 없다’는 원리적 배제로 이행하여 인간의 언어가 진리의 자리를 대신할 때 비로소 발생한다. 이 구분의 기준은 II장에서 ‘원리적 배제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대 언어사상의 주요 전환들—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구조주의 언어학), 비판적 전환(critical turn)(비판적 언어학), 담론적 전환(discursive turn)(비판적 담론 연구), 기호적 전환(semiotic turn)(사회기호학), 포스트모던 언어관—을 계보적으로¹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 중에 각 전환이 언어의 어떤 차원을 밝혀냈는지를 평가하고, 동시에 그것들이 드러내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한계를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언어학의 관점²에서 모색한다. 이는 언어 연구의 인문적 접근을 우악스럽게 부정하거나 신학의 이름으로 배척하려는 시도가 아니며, 오히려 현대 언어사상이 언어의 사

1) ‘계보적’은 사상가들 사이의 역사적 계승 관계를 추적한다는 뜻이 아니며, 니체식 혹은 푸코식 의미의 계보학을 방법으로 채택했다는 뜻도 아니다. 여기서는 상이한 전환들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하나의 논리적 이행 형식을 재구성한다는 뜻이며, 이 점에서 통상적인 사상사 서술과 구별되는 이념형적 작업이다.

2) 본고에서 ‘기독교언어학’은 국어학, 영어학과 같은 대상 언어별 분과나 음운론, 통사론과 같은 층위별 분과와 나란히 놓이는 또 하나의 기술언어학 분과가 아니다. 그것은 언어 연구가 전제하는 인간관, 진리관, 목적론을 성찰하고 그 분석적 성과를 재배치하는 메타이론적 층위를 지시하며, 개혁주의 학문 전통에서 ‘기독교 철학’이나 ‘기독교 교육학’이 각 분과의 방법을 대체하지 않으면서 그 전체를 성찰하는 층위를 가르켜온 것과 같은 용법이다(양성만·홍병룡 역, Wolters & Goheen, 2007; Poythress, 2009, 2015). ‘언어학’이란 명칭이 기술언어학 분과를 우선 연상시킬 수 있지만, 본고의 명명은 개별 언어학 분과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그 방법론을 신학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회성, 권력성, 실천성, 다중기호성을 드러낸 공헌을 ‘일반 은총(common grace)’의 차원에서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설명이 언어 연구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오늘날 언어를 둘러싼 학문적 논의는 의미와 진리, 정체성과 윤리의 문제를 점점 더 담론, 수행성(performativity), 사회적 구성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이 흐름은 교육, 미디어, 사법, 정치, 문화 등 공공 담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신동일, 2018, 2020, 2022, 2023a, 2025). 둘째, 기독교 지성계 내부에서도 언어 연구와 기독교 세계관의 접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현대 언어사상의 계보를 따라가며 그 논리적 귀결을 검토하는 동시에, 언어를 로고스와 계시, 성육신과 청지기성의 관점에서 다시 이해하는 기독교언어학적 틀을 제안하고, 기독교 학문이 현대 언어 문제에 응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문헌 연구와 사상사 분석, 그리고 세계관 비평을 병행하는 ‘계보적-비판적 논술’의 방법을 택한다. 여기서 두 가지 방법론적 전제를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 하나는 본고의 분석 대상이 앞서 언급한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차후에 설명할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등의 텍스트 그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제안한 개념이 20세기 이후 인문사회 학문 분야에 수용되고 제도화되며 급진화된 경로, 곧 ‘수용사(reception history)’라는 점이다. 각 사상가의 논의 내부에는 본고가 비판하는 방향과 다른 독해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 활동은 자의적 규약이 아니라 걷기나 먹기와 같은 ‘인간의 자연사(natural history)’ 일부로 기술되며(Wittgenstein, 1953), 이는 언어게임 개념을 상대주의적으로 읽어온 통상의 수용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내부적 긴장을 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긴장이 수용의 과정에서 어떻게 소거되었는가에 주목하려고 한다. 즉, 비판의 표적은 사상가의 텍스트가 아니며 그 텍스트가 소비되고 제도화된 방식이 된다. 본고는 특정 개념의 인용 빈도나 제도화 경로를 계량적으로 추적하는 문헌계량적 수용사 연구를 수행하지 않으며 근거로 삼는 자료는 원 사상가 자신의 반론 텍스트가 된다.

예를 들면, 자의성을 극단화하는 독법에 대해 군터 크레스(Gunther Kress)는 기호가 자의적이지 않고 ‘동기화되어’ 있다고 주장했고(Kress, 2010), 담론의 구성성을 실재의 부정으로 읽는 독법에 대해 담론 연구자 노먼 페어클러프(Norman Fairclough)는 비판적 실재론을 수용하며 직접 반박했다(Fairclough et al., 2004). 데리다는 ‘텍스트 바깥은 없다’가 ‘맥락 바깥은 없다’는 뜻임을 따로 해명해야 했으며(Derrida, 1988), 버틀러는 수행성을 주권적 주체의 의지적 선택으로 읽는 대중적 독법을 명시적으로 반박하면서 그것이 규범의 반복적이면서 인용적인 실천이자 제약의 구조임을 강

조했고(Butler, 1993), 이후에는 자기 서사와 응답 책임의 윤리적 차원까지 논의를 확장했다(Butler, 2005). 푸코도 후기 작업에서 주체화와 자기배려의 문제를 다시 열어놓음으로써, 주체를 담론의 효과로만 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남겼다(Foucault, 2001 ; 이혜숙·이영목 역, Foucault, 2011).

이론가가 특정 독법에 대한 반론을 별도로 집필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독법이 이미 학계에 널리 유통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텍스트적 증거다. 또한 그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개념이 유통되고 제도화된 흔적도 근거자료가 된다. 구조주의와 형식주의의 수용 결과를 ‘언어의 감옥’으로 정식화한 Jameson(1972)의 작업은 이러한 개념들이 원사상가의 유보 조항과 분리된 채 학제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의 비판 대상은 소쉬르, 비트겐슈타인, 푸코, 데리다, 버틀러 등의 텍스트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설정한 제한선이 반복적으로 무너진 독법의 형식으로 봐야 한다.

또 다른 전제는 본고의 ‘계보’ 개념이 하나의 전환이 다음 전환을 인과적으로 낳았다는 연대기적 계승 서사가 아니란 점이다. 다섯 전환은 상이한 지적 전통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실제로 서로를 비판하기도 했으며, 동일한 층위의 학문적 단위도 아니다. 비판적 언어학과 비판적 담론 연구는 계승적 관계를 갖는 하나의 학맥이지만, 사회기호학은 체계기능언어학에서 갈라져 나온 별도의 연구 전통이고,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논의는 언어학이 아니라 매체나 문명 비평에 속한다. 본고가 추출하려는 것은 이들 사이의 역사적 계승 관계가 아니라,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에 내재한 하나의 논리적 경향, 즉 언어의 부분적 속성을 언어 전체에 관한 총체적 설명으로 확대하는 경향이다. 오히려 계보와 문제의식을 달리하는 논의들에서 같은 이행이 되풀이된다는 사실이야말로, 그것이 개별 이론가의 우연한 오류가 아니라 수용 국면의 구조적 경향임을 뒷받침한다. 이는 사상사의 축약이 아니라 분석을 위한 ‘이념형적(ideal-typical) 재구성’이며, 그 타당성은 사실적 완결성이 아니라 오늘의 언어 담론을 설명하는 유효성에서 판정되어야 한다.

이 두 전제 위에서 Ⅲ장부터 Ⅶ장까지는 각 전환이 언어의 어떤 측면을 새롭게 드러냈으며 무엇을 약화시켰는지를 누적적으로 분석하되, 각 장마다 해당 전환의 학문적 공헌, 존재론적 한계, 기독교 세계관의 응전이라는 세 층위로 논의를 전개한다. 다만 ‘공헌’과 ‘한계’를 가르는 경계가 자의적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어느 지점에서 설명적 통찰이 부당한 궁극화로 이월되는가에 관한 판별 기준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Ⅲ장 이하의 논의에 앞서 Ⅱ장에서 별도로 다룬다. 이러한 논거로부터 Ⅷ장에서는 기독교언어학적 대안(창조와 성육신에 기초한 로고스 중심의 언어관)을 제시하고, 그 틀로부터 실제 분석 및 교육적 실천(비판적 언어감수성 교육)에 제공하는 비판적 통찰과 대안적 방향성을 탐색한다.

본 연구는 해체와 비판을 넘어,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히1:3) 안에서 언어의 속성을 다

시 탐색하고자 한다. 이때 비판의 대상은 실재에 대한 인간의 접근이 언어로 매개된다는 인식론적 주장이 아니다. 그러한 주장은 인간의 유한성과 피조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 부분 양립한다. 문제는 이 인식론적 매개 명제가 실재 자체가 언어에 의해 산출된다는 존재론적 명제로 전환될 때, 곧 ‘약한 구성주의’가 ‘강한 구성주의’로 이월될 때 발생한다. 본고가 기독교의 ‘계시 진리’와 ‘창조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지목하는 것은 후자이며, 전자가 아니다.

II. 일반 은총의 수용과 비판의 경계

본고는 현대 언어사상의 분석적 통찰을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수용하되 그것이 총체적 세계관으로 기능할 때 비판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물론 이러한 이중 태도는 그 자체로는 아직 방법이 아니다.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비판할지가 논자의 신학적 직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면, 수용과 비판의 경계는 유동적인 것이 되고 비평은 자의적인 인상 비평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지점에서 설명적 통찰이 부당한 궁극화로 이월되는가를 판별할 기준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1. 논리적 도약의 판별 기준

이러한 기준의 신학적 근거는 개혁주의 세계관 전통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구조(structure)’와 ‘방향(direction)’의 구분에서 찾을 수 있다(양성만·홍병룡 역, Wolters & Goheen, 2007). 창조 세계의 구조는 그 자체로 선하며, 타락은 구조의 소멸이 아니라 그 구조가 지향하는 방향의 왜곡이다. 이를 언어 연구에 적용하면 논점은 분명해진다. 언어의 체계성, 사회성, 권력성, 다중양식성은 언어라는 피조물의 구조에 속하며, 이를 규명하는 작업은 창조 질서를 분별하는 학문적 봉사다. 문제는 이 구조적 속성 가운데 하나가 언어의 존재 방식 전체를 규정하는 원리로 승격되어 다른 차원을 흡수할 때, 곧 방향의 문제가 발생할 때다.

그러므로 본고의 비판은 각 전환적 사유가 밝혀낸 내용을 향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확장되는 논리적 운동을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확장의 지점을 식별하기 위해 본고는 다음 네 가지 판별 기준을 적용한다.

첫째, 전칭화(universalization) 기준이다. 부분적 설명 명제가 전칭 명제로 확장되는 지점을 포착한다. “언어에는 권력 관계가 개입한다”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며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언어는 권력 효과일 뿐이다”는 다른 종류의 명제가 된다. 전자는 언어의 한 차원을 기술하지만, 후자

는 언어의 다른 모든 차원을 사전에 배제한다. 후자는 전자의 강화된 형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질적인 주장이며, 전자를 아무리 많이 축적해도 후자는 도출되지 않는다.

둘째, 범주 이탈 기준이다. 특정 학문이 세운 ‘방법론적 결정’이 ‘존재론적 주장’으로 오독되고 전환되는 지점을 본다. 소쉬르가 랑그를 언어학의 고유 대상으로 설정하고 파롤(parole)을 연구 범위 바깥에 둔 것은 분석 대상을 한정하는 ‘방법론적 유보’이지, 발화의 실재성이나 화자의 인격적 책임을 부정하는 존재론적 선언이 아니다. 자연과학이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택한다고 해서 형이상학적 무신론을 입증한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문제는 학문적 편의를 위해 일단 한쪽으로 치워둔 유보 조항이 수용 과정에서 존재론적 부정으로 왜곡되고,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가 “존재하지 않는다”로 미끄러질 때 발생한다. 천문학자가 관측 편의를 위해 망원경의 시야를 특정 은하로 한정했다고 해서 그 바깥의 우주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본고가 각 전환에서 추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법론적 제한이 존재론적 부정으로 비약하는 성급한 논리적 도약의 지점이다.

셋째, 자기지시성 기준이다. 어떤 이론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될 때 견딜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모든 진리 주장은 권력의 효과”라는 명제는 그 자신도 진리 주장이므로, 참이라면 그 자신도 권력의 효과에 불과하고, 따라서 자신의 규범적 구속력을 스스로 무너뜨린다. 이 수행적 모순을 감당할 이론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예외로 두는지가 갈림길이 된다. 자기 검증을 거치지 않는 비판은 이미 비판이 아니라 또 하나의 권위적 주장일 뿐이다.

넷째, 원리적 배제 기준이다. 체계 외부로부터의 개입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유보하는가, 원리적으로 배제하는가를 본다. 특정 연구가 계시나 초월적 사건을 다루지 않는 것은 학문 분과의 정당한 자기 제한이다. 그러나 담론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다거나 텍스트 바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서둘러 닫힌 체계를 선언한다면, 이는 더 이상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형이상학적 결단이고 독단적 전제일 뿐이다. 이러한 결단은 학문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며, 뒷받침될 수도 없다.

앞의 세 기준은 기독교 세계관을 전제하지 않고도 적용 가능한 논리적이고 방법론적 기준이다. 네 번째만이 신학적 성격을 지닌다. 본고가 각 전환을 비판할 때 대체로 앞의 세 기준을 먼저 적용하는 것은, 이 비판이 신앙의 이름으로 학문을 재단하는 외재적 간섭이 아니라 이론 자신의 논리적 요구에서 출발함을 보이기 위해서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 기준들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하 각 장에서 “만일 ~라면”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명제들은 해당 학문 분과가 실제로 내세운 주장이 아니다. 그것은 각 전환의 전제를 논리적 극단까지 밀고 갔을 때 무엇이 따라 나오는가를 시험하기 위한 귀류법적 장치이며, 동시에 수용국면에서 유통된 강한 독법의 형태를 재구성한 것이다. 예컨대 “모든 언어가 권력의 효과라면”이라

는 가정은 비판적 언어학의 1차 텍스트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 이론적 유보가 탈락한 채 여러 담론으로 확산될 때 귀결되는 지점을 검토하기 위한 도구다. 원사상가들이 이 극단을 스스로 거부했다는 사실은 각 장에서 함께 밝힌다. 본고가 문제 삼는 것은 그 가정의 저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 전제로 작동해 왔다는 사실이다.

2. 매개된 인식과 구성된 실재

이 기준들을 적용할 때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은 구성주의에 대한 규정이다. 구성주의를 곧 바로 반실재론과 동일시하는 것은 부정확하며, 본고는 그러한 동일시를 취하지 않는다. 실재에 대한 인간의 접근이 언어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매개된다는 주장, 곧 ‘약한 구성주의’는 인식론적 명제다. 이는 인간의 유한성과 피조성, 그리고 타락 이후 인식의 왜곡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이 자신의 인식을 무매개적 신적 관점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신학적으로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인식론적 매개 명제가 ‘실재는 담론에 의해 산출된다’는 존재론적 명제로, 즉 ‘강한 구성주의’로 이월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월은 위의 둘째 판별 기준이 지목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구분이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외재적으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담론 연구 내부에서도 스스로 제기되어 온 자기반성적 구분이라는 사실이다.

비판적 실재론은 지식의 생산과 무관하게 독립하여 존재하는 ‘실재 자체의 차원(자동적 차원, intransitive dimension)’과, 그 실재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이 지식을 만들어내는 ‘인식과 담론의 차원(타동적 차원, transitive dimension)’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인식의 매개’와 ‘실재의 부정’을 갈라놓았다(Bhaskar, 2008). 페어클러프 역시 후기 연구에서 이 입장을 수용하여, 언어와 기호가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지만 그렇다고 현실 자체가 오직 언어로만 환원되는 것은 아니며 언어 바깥의 실재적 조건에 의해 제약받는다고 논한 바 있다(Fairclough et al., 2004).

본고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담론 연구만 보더라도 이론적 층위에서 실재론적 자기제한을 선언했으나, 그 선언은 수용사에서 관철되지 않았다. 개념은 자동적 차원에 대한 유보 없이 유통되었고, 인식적 매개에 관한 신중한 명제는 실재의 담론적 산출에 관한 대담한 명제로 축약되어, 다양한 공공 담론으로 확산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각 장에서 검토할 것은 개별 이론가의 오류가 아니라, 이론이 스스로 설정한 제한선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무너져 왔는가 하는 탐색이다.

III. 언어적 전환: 자율적 구조의 탄생과 실재성의 약화

20세기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언어적 전환’이라 불리는 인식론적 이동이다. 이러한 전환 이전의 전통적 관점에서 언어는 대체로 외부 세계를 묘사하거나 이미 주어진 진리를 전달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언어적 전환’으로 언어는 단순한 표현의 매체가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분류하며 사회적 현실을 조직하는 핵심 조건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이 전환의 핵심 질문은 “언어가 세계를 단순히 반영하는가, 아니면 세계를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 틀인가”였다. 현대 인문학은 후자를 점점 더 강하게 긍정하면서, 객관적 실재나 보편적 의미가 언어 바깥에 자명하게 주어져 있다는 전제를 흔들었다. 이 장에서는 언어적 전환을 이론적으로 정초한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의 사유를 검토하고, 그 학문적 공헌과 존재론적 한계를 함께 살핀 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1.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 언어적 전환의 두 축

언어적 전환의 방법론적 기틀을 마련한 것은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이다. 소쉬르는 언어를 사물과 명칭이 직접 맞는 관계로 보는 전통적 관점을 거부하고,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기호 체계로 설명하였다(Saussure, 1983). 그의 핵심 통찰은 세 가지다. 첫째, 기호의 자의성(arbitrariness)이다.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본질적이거나 자연적인 연결이 없으며, 언어의 의미는 사물의 본질에서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호 간의 관계와 차이 속에서 형성된다. 둘째, 랑그(langue)와 파롤(parole)의 구분이다. 소쉬르는 언어학의 연구 대상을 (개별 화자가 특정 상황에서 수행하는 실제 발화인) 파롤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하는 추상적 규칙 체계인) 랑그로 설정하고, 언어를 과학적으로 분석가능한 구조로 제시했다. 셋째, 공시적(synchronic) 분석의 우위다. 이를 통해 현대 언어학은 전통적 어원 연구를 넘어 구조 분석과 관계 분석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으며, 이후 구조주의부터 해체주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이론적 영향력을 미쳤다(신동일, 2018, 2023b).

언어적 전환을 인식론적으로 심화시킨 것은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사유다. 그의 초기 저작 《논리철학논고》에서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투명하게 묘사하는 도구였으나, 《철학적 탐구》에 이르러 그는 이를 전면 수정하였다. 의미란 고정된 본질이 아니며, 언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삶의 형식(form of life)’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Wittgenstein, 1953). 그의 ‘언어게임’ 개념은 언어의

정당성을 외부 실재와의 일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규칙 준수와 사용 방식에서 찾는다.

소쉬르가 언어의 내부 구조를 확립했다면, 비트겐슈타인은 그 구조가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인식의 조건으로 작동하는지 규명한 것이다. 이제 언어는 사회적 실천에 뿌리를 둔 역동적 행위로 이해되었고, 존재의 본질을 묻는 형이상학적 질문들은 논리적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철학의 장에서도 밀려나게 되었다. 여기서 두 가지 주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언어가 세계를 분절하고 범주화하며 의미화하는 인식의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언어를 단순한 정보 전달 도구로 보는 소박한 견해에 대한 정당한 교정이며, 본고는 이를 수용한다. 다른 하나는 언어가 인식의 조건인 만큼 인식의 전부라는 주장, 곧 언어 바깥에서는 어떤 접근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앞의 것은 조건에 관한 명제이고 뒤의 것은 총체성에 관한 명제이며, 둘은 연결될 수는 있으나 동일하지 않다. 비트겐슈타인 자신은 뒤의 주장을 편 바 없다. 앞서 언급했듯 그에게 언어 활동은 인간의 자연사에 뿌리내린 실천이었고, 삶의 형식은 언어가 임의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앞서 주어지는 것이었다.

문제는 언어게임 개념이 인문학 전반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이 자연사적 배경이 탈각되고, 규칙과 용법의 내재적 정합성만이 의미의 유일한 근거로 남았다는 데 있다. 이 축약된 형태에서 언어는 인식을 매개하는 조건을 넘어 인식의 ‘총체(totality)’로 승격된다. 그리고 언어가 인식의 총체로 다루어지는 순간, 그 체계 바깥을 향한 물음은 틀린 물음이 아니라 아예 성립하지 않는 물음이 된다. 초월적 계시가 반박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Thiselton, 1992).

Jameson(1972)가 구조주의와 형식주의의 수용 결과를 ‘언어의 감옥(the prison-house of language)’으로 요약한 것도 계보를 달리하는 자리에서 같은 이행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이 성립한다면, 그것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자연사적 배경이 탈각된 채 유통된 수용 형태에 대한 진단이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 활동은 인간의 자연사에 뿌리내린 실천이었고, 삶의 형식은 언어에 앞서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앞 장에서 제시한 첫째 기준, 곧 조건에 관한 부분 명제가 총체성에 관한 전칭 명제로 전환되는 전형적 사례다.

2. 구조주의의 학술적 공헌과 수용 국면의 존재론적 귀결

언어는 점차 존재와 초월, 계시를 담는 통로라기보다 사용 규칙과 사회적 약속의 차원에서 이해되었고, 그런 만큼 실재를 지시하는 언어의 기능은 약화되었다. 구조주의는 이러한 흐름을 정교하

게 이론화하면서, 언어를 외부 세계와 직접 연결된 표상 체계가 아니라 내부 차이의 질서로 설명하였다. 결국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으로 주도된 언어적 전환은 언어를 분석가능한 체계로 정식화함으로써 언어 내부의 질서와 규칙성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길을 열게 했다. 이는 인류학, 문학 이론, 기호학 등 인접 학문이 구조적 분석 방법을 차용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의미의 차이성과 관계성을 부각시키면서, 언어가 단순한 명명 체계가 아니라 관계적 질서임을 드러냈다. 이 통찰은 차후에 사회기호학과 다중양식성 연구로 확장되면서 이미지, 공간, 몸짓 등 비언어적 매체 분석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언어의 사회성도 선명하게 조명되었다. 소쉬르의 자의성 개념은 언어가 개인의 즉흥적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약속과 공동체적 규칙 속에서 유지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는 언어를 개인 심리의 반영으로 보는 전통적 사유를 넘은 것이며, 훗날 비판적 언어학과 담론이론이 언어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구조주의는 사회비판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지만 언어를 사회 제도와 문화 질서 속에서 생각하게 만든 출발점이 된 것이다.

그러나 구조주의의 공헌은 언어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던 방법이 ‘언어의 전부’를 다루는 절대적 원리로 비약할 때 존재론적 한계를 드러낸다. 물론 이 한계를 소쉬르의 ‘자의성’ 명제 탓으로 돌릴 수만 없다. 소쉬르가 말한 자의성은 특정 소리와 특정 의미 사이에 필연적 연결이 없다는 뜻이며,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 사회적 규약과 관습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을 가리킬 뿐이다. 이는 언어와 실재의 관계 전체를 부정하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소쉬르는 자의성뿐만 아니라 기호의 ‘불변성(immutability)’을 함께 강조하면서, 언어공동체의 규약이 개별 화자에게 강력하게 작용하므로 언어가 개인의 임의대로 흔들릴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Saussure, 1983).

소쉬르의 자의성 명제가 후대에 수용되는 국면을 살피려면 두 층위를 구분해야 한다.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 실제 사용 국면에서 불확정적(underspecified)이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사실이다. 동일한 기표가 공동체와 맥락에 따라 다른 기의를 담는 일은 흔하며, 신앙 공동체의 언어도 예외가 아니다. ‘섬김’이라는 기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돌본다는 본래의 기의를 떠나 조직 내 업무 수행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곤 하며, 때로는 동일한 종교적 기표가 전혀 다른 신념 체계를 담아 유통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확정성은 언어에 대한 분별을 요청하는 근거이지, 언어와 실재의 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문제는 이 사용상의 불확정성이 ‘기표와 기의의 결합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존재론적 명제로 승격될 때 발생한다. 후대 학자들이 소쉬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의성’과 ‘불변성’이라는 두 축을 분리하여, 사회적 구속력을 뜻하는 불변성은 잊은 채 자의성만 강조한 결과다. 이 이행이야말로 Ⅱ장에서 제시한 첫째 기준, 곧 부분 명제의 전칭화에 해당한다.

이처럼 자의성이 과도하게 부각될 때 언어는 실재를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라 스스로 작동하는 자

기완결적 체계로 전락하고, 의미는 사물의 진실이 아니라 기호들 사이의 차이 속에서 해체된다. 데리다의 차연 개념 역시 소쉬르의 본래 사유에서 직접 도출된 결과라기보다, 불변성이 제거되고 자의성만 부각된 독법 위에서 전개된 것이다(Derrida, 1976). 이 지점을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 논의와 곧바로 잇는 독법도 있으나, 두 논의는 계보를 달리한다. 보드리야르의 작업은 소쉬르 수용의 언어학적 귀결이 아니라 후기 자본주의 매체 환경에 대한 문명 비평에 속하며, 본고가 두 논의를 한 자리에서 다루는 근거는 계승 관계가 아니라 기호의 근거를 사회 내부에서만 찾는다는 공통 전제에 있다. 이 점은 VI장에서 별도로 논한다.

소쉬르의 또 다른 결정에 대해서도 같은 구분이 필요하다. 랑그를 언어학의 고유 대상으로 설정하고 파롤을 그 바깥에 둔 것은 그 자체로는 존재론적 명제가 아니다. 그것은 언어를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대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적 괄호치기이며, 소쉬르가 발화의 실재성이나 화자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소쉬르에 대한 존재론적 비판은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연구 대상을 랑그로만 한정한 소쉬르의 방법론적 선택은 후대 학계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언어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형이상학적 선언으로 변질되었다.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인 요소들이 점차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개별 화자의 인격적 책임과 창조적 표현은 구조가 만드는 부차적 부산물 정도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제 언어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규정하고 제약하는 익명의 체계로 묘사되고, 인간은 공동체를 세우는 화자라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구조 안에서 의미를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한다. 이것이 II장에서 제시한 둘째 기준, 곧 ‘범주 이탈 기준(방법론적 유보가 존재론적 부정으로 오독되는 현상)’이 지목하는 대표적 사례다. 결국 비판의 표적은 소쉬르의 연구방법론 자체가 아니라, 그 방법론적 한계를 존재론적 부정으로 오독하고 확장한 후대의 독법이다. Vanhoozer(1998)가 지적하듯, 이러한 흐름은 저자, 텍스트, 독자라는 개념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근본적으로는 의미의 최종 보증자이신 하나님을 언어 연구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구조주의적 분석은 의미에 대한 체계적 탐구를 가능하게 했지만, 그 성과가 언어 전체에 관한 총체적 설명으로 확장된 자리에서는 의미의 궁극적 근거가 공허해지는 위험이 함께 드러났다.

3. 기독교 세계관의 응전: 자의성을 넘는 성육신의 로고스

기독교언어학자는 구조주의의 분석적 통찰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언어가 공동체 속에서 규칙적으로 조직되며 의미가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통찰은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언어의 체계성과 사회성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인간에게 주어진 공동체적 선물의 속

성을 반영한다(Poythress, 2009). 문제는 그 구조가 점차 언어의 전부로 간주되면서 언어와 실재의 관계가 약화되고 의미가 차이의 자기순환 속에 갇히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데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자의성이 불변성과 분리되어 급진화된 지점, 곧 말과 존재의 연결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언되는 지점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성육신 원리로 응답한다. 여기서 성육신은 기호학적 명제에 대한 반증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다.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 관습적이라는 기술은 그 층위에서 타당하며, 성육신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성육신이 증언하는 것은 다른 층위의 사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건은 말과 존재, 계시와 역사 사이의 연합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 곧 언어가 실재에 닿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언한다. 자의성이 언어 내적 층위의 기술이라면, 성육신은 그 언어가 무엇을 향해 열려 있는가에 관한 존재론적 진술이다. 이는 언어를 공허한 기호 놀이가 아니라 진리와 존재를 매개하는 책임 있는 질서로 이해하게 한다. Thiselton(1992)의 표현을 빌리자면, 언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변혁시키는 수행적 행위다.

따라서 언어의 윤리적 책임은 구조의 자율성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도출된다. 기독교언어학자라면 구조주의의 분석적 통찰을 활용하되, 그 체계를 궁극화하지 않고 로고스의 빛 아래 재배치함으로써, 언어와 실재, 언어와 진리, 언어와 책임의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인간의 언어 사용은 상황에 따라 조작 가능한 기표의 연쇄에 머물 수만 없다. 창조 질서 안에서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청지기적 실천이어야 한다.

IV. 비판적 전환: 권력의 장치가 된 언어와 그 너머의 진리

구조주의가 언어 내부의 자율적 질서에 천착했다면, ‘비판적 전환’은 언어를 사회적 실천이자 권력의 전장으로 재정의하였다. 1970년대 영국 East Anglia 대학교를 중심으로 로저 파울러(Roger Fowler), 토니 트루(Tony Trew), 군터 크레스(Gunther Kress) 등이 주도한 비판적 언어학은 언어가 결코 중립적인 정보 전달 매체가 아님을 체계적으로 폭로하였다(Fowler et al., 1979). 이 장에서는 비판적 언어학의 학문적 공헌을 살피고, 모든 언어를 권력 투쟁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지닌 존재론적 한계를 검토한다.

1. 구조에서 권력으로: 언어의 비중립성 폭로

비판적 언어학의 문제의식은 언어가 결코 중립적 매체가 아니라는 데 있다. 특정한 어휘 선택, 문

장 배열, 주어와 목적어의 배치, 행위자의 노출과 은폐는 모두 단순한 표현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 관계와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반영한다.

Trew(1979)가 ‘경찰의 비무장 군중 사살 사건’ 관련 기사를 분석한 작업은 그 전형적 사례다. 수동태(passivization), 행위자 삭제(agent deletion), 명사화(nominalization)와 같은 문법적 변형이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은폐하는 권력지향적 언어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비판적 언어학은 문장 구조와 어휘 선택 배후에 숨은 지배 의지를 추적함으로써, 텍스트 표면 아래 도사린 불평등한 권력 메커니즘을 분별하도록 돕는 ‘언어감수성(language awareness)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신동일, 2022, 2025).

마이클 할러데이(Michael Halliday)의 체계기능언어학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언어의 선택과 배열은 중립적으로 보이더라도, 사회적 가치와 권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Halliday, 1978). 모든 발화는 경험적 기능(무엇을 말하는가), 대인적 기능(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말하는가), 텍스트적 기능(어떻게 메시지가 조직되는가)이라는 세 가지 메타기능을 통해 의미를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언어는 사회적 경계를 짓고,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며, 특정 집단의 경험을 가시화하거나 은폐하는 방식으로 사회 질서를 조직한다. 언어는 랑그의 차원에서만 다뤄질 수 없으며, 사회를 변혁하거나 유지하는 역동적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여기서 비판적 언어학 전통이 지닌 규범적 성격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 전통은 무차별적 상대주의를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로, 언어 속에 은폐된 불평등을 폭로하고 사회적 해방에 기여하겠다는 윤리적 관심에서 출발했다(Fowler et al., 1979 ; Fairclough, 2011). ‘부당한 지배는 그릇된 것이며, 불평등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신념은 비판적 언어학이 입증해야 할 결론이 아니라, 연구 전체를 받치는 출발점이자 전제였다. 할러데이의 체계기능언어학이 언어를 ‘사회적 기호(social semiotic)’로 규정할 때에도, 그 바탕에는 언어교육과 사회 참여를 통해 인간의 의미 자원을 확장하려는 실천적 지향이 있었다(Halliday, 1978).

그러나 이들이 내세운 ‘정의와 해방’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비판적 언어학은 왜 지배가 나쁘고 해방이 좋은지에 대한 정당화 근거를 이론 내부에서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고, 근대 인문주의의 인간 존엄성이나 마르크스주의적 해방 서사에 의존했다. 초기에는 이러한 가치들이 당시 학계에서 자명하게 받아들여졌기에 문제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후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정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마저 지배 담론의 구성물로 규정하며 그 전제를 해체했다. 이로 인해 비판적 언어학은 자신들이 전제해 온 규범적 토대를 방어할 근거를 상실하는 한계에 직면했다. 본고가 지목하는 비판적 언어학의 한계는 이들이 비판의 기준이 되는 존재론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후대의 무차별적 상대주의에 무력하게 길을 열어주고 말았다는 지

점에 있다.

2. 권력 환원주의의 위험: 진리의 상대화와 허무주의

언어로 감춰진 권력의 메커니즘을 드러낸 기여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언어학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맹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첫째는 비판의 기준 자체가 스스로 무너지는 ‘자기 잠식(자기지시성의 모순)’의 문제다. 비판적 언어학자는 모든 언어 행위를 권력 투쟁으로만 단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분석 도구가 일관되게 적용될수록 결국 비판을 가하는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된다. 만약 누군가의 주장은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 위치와 이해관계를 반영하므로 순수한 진리가 될 수 없다고 공격한다면, 동일한 잣대가 그것을 비판하는 자신의 주장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비판 연구자만 사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특별한 존재일 수 없다. 이것은 II장에서 제시한 셋째 기준, 곧 ‘자기지시성(이론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될 때 견딜 수 있는가)’이 지목하는 모순이다. 비판적 언어학은 이 모순을 해결할 장치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마저 ‘또 하나의 권력 게임’으로 환원될 수 있는 이론적 맹점을 노출했다.

둘째는 정의, 사랑, 희생, 공동선과 같은 보편적 가치들까지 전략적 표어로 환원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가치들이 권력의 수단으로 오용된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 그 가치 자체의 존재론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모든 언어가 권력 연출의 수단일 뿐이라면, 신앙의 고백과 예언자적 선포,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의 언어 역시 동일한 의심의 대상이 될 뿐이다. 언어는 진리를 증언하거나 생명을 살리는 매개가 되지 못하고, 끝없는 의심의 기술로만 남게 된다.

셋째는 행위주체성의 축소다. 비판적 언어학의 분석 관심은 개별 화자의 의도가 아니라 텍스트에 침전된 구조적 효과에 있으며, 이는 정당한 방법론적 초점이다. 의도를 묻지 않는 것과 의도가 없다고 보는 것은 다르다. 다만 이 초점이 인간 이해 전반으로 확장될 때, 곧 II장의 둘째 기준이 지목하는 ‘범주 이탈(방법론적 초점이 존재론적 주장으로 이월되는 현상)’이 일어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발화가 구조의 반사 작용으로만 읽히면 인격적 책임, 진실한 고백, 회개와 화해의 가능성은 설명하기 어려워지며, 인간은 자율적 주체가 아니라 권력의 효과물로 축소된다. 이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이해하는 기독교적 인간관과 충돌한다.

3. 기독교 세계관의 응답: 죄에 대한 고발과 청지기적 책임

비판적 언어학은 비판의 힘 또는 경고의 기능은 명확하게 드러냈지만, 이를 넘어선 회복의 언어까지는 제시하지 못한다. Vanhoozer(1998)가 지적하듯, 의미를 보증하는 초월적 근거 없이는 비판

자체도 결국 또 하나의 권력 게임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기독교 세계관은 비판적 언어학이 밝혀 낸 언어의 권력성을 언어의 ‘죄성’에 대한 고발로서 수용한다. 타락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타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욕망을 은폐하는 현실은 기독교가 오랫동안 경계한 언어의 왜곡된 실상과 도구를 같이한다. 타락한 세상에서 언어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고 왜곡, 선전, 배제, 폭력의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다(Poythress, 2009). 따라서 기독교인에게 언어 비판은 단순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넘어, 진실을 은폐하고 불의를 당연시하는 담론의 그늘 속에서 인간의 교만과 배타성을 회개하는 윤리적 실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어를 단지 권력 투쟁의 산물로 환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청지기적 책임으로 이해한다. 언어의 주권은 권력이 아닌 ‘로고스’ 아래에 있다. 진리는 시대의 권력 관계에 따라 재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 이미 주어진 것이기에(요17:17), 우리는 언어를 회복과 화해, 증언과 사랑의 통로로 되돌리는 데 전념해야 한다.

언어는 기술적 도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수행적 힘을 지닌다(Thiselton, 1992). 언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피조물과 교제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다. 비판적 전환이 언어의 비중립성을 드러내어 지적 각성을 일깨운 것은 분명하지만, 진리의 거룩한 실재마저 권력의 불모로 내어주는 결함을 남겼다.

V. 담론적 전환: 사회구조를 매개하는 언어적 실천

구조주의가 언어 내부의 자율적 질서를 체계화하고, 비판적 언어학이 텍스트 표면 아래 감춰진 이데올로기를 포착했다면,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담론적 전환’은 언어를 사회구조의 매개와 재편을 이끄는 역동적인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담론 이론은 언어를 텍스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와 제도, 문화 규범, 지식 체계 등을 매개하는 총체적 실천으로 이해한다. 여기서는 푸코와 페어클러프의 시각을 빌려 언어와 권력/지식이 사회적 실천 속에서 현실을 구성하는 양상을 먼저 고찰한다. 이어 진리가 권력의 효과로 환원되어 버리는 담론주의적 위험 앞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1. 담론적 전환의 의의: 사회를 짓는 언어적 실천

담론적 전환의 공헌은 언어를 개인의 발화나 추상적 규칙의 산물을 넘어, 사회구조를 매개하고 재편하는 ‘실천(practice)’으로 재정의한 데 있다. 페어클러프는 텍스트와 사회구조가 일방향적 관

계가 아니라 상호 매개적이고 변증법적인 관계 속에 있다고 보면서, 담론적 사건(discursive event)을 텍스트적 차원, 담론적 실천, 사회문화적 실천이라는 상호 연계된 세 층위로 파악하였다(Fairclough, 1992). 이 모형에서 언어는 미시적 텍스트와 거시적 제도 질서를 연결하는 장치가 되며, 개별적 담론 행위도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재생산하거나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는 힘을 발휘한다. 언어는 세계를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성하고 재구성한다(Fairclough, 1992).

한편 페어클러프는 담론이 사회적 실재를 구성한다는 명제를 실재의 부정으로 읽는 독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그의 후기 문헌을 보면 비판적 실재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언어기호적 실천이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고 재편하는 힘을 지니지만, 그렇다고 실재가 오직 언어로만 환원될 수 없으며, 언어 너머의 실재적 조건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았다(Fairclough et al., 2004). 담론 분석이 언어의 구성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객관적 실재를 부정하는 ‘반실재론(anti-realism)’ 입장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미시적 언어 분석과 거시적 사회 분석의 유기적 결합이야말로 담론적 전환이 도달한 핵심 지점이 된다. 개별 텍스트의 문장 구조, 어휘 선택, 재맥락화 방식은 제도적 질서, 계급 구조, 문화 권력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으며, 역으로 이러한 사회구조 역시 구체적인 담론 실천을 통해 유지되고 재생산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신동일, 2022). 이러한 관점은 언어 분석으로 구조적 악과 사회적 불의를 식별할 가능성을 열었고, 나아가 담론 분석이 ‘사회가 언어를 통해 어떻게 구성되고 정당화되는가’를 규명하는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끌었다.

푸코의 권력/지식 이론은 담론 연구의 인식론적 지평을 넓히는 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했다. 그는 역사를 고고학적, 계보학적 방법론으로 탐구하면서(이정우 역, Foucault, 2000 ; 오생근 역, Foucault, 2003), 담론을 지식과 권력이 얽혀 작동하는 장으로 파악했다. 나아가 사회마다 무엇을 ‘진리’로 인정하고 통용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진리 체제(regime of truth)’ 개념을 정립하였다(Foucault, 1980).

이 개념의 취지는 흔히 오해되는 것처럼 진리라는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데 있지 않다. 푸코는 자신을 상대주의자로 규정하는 시도를 명백하게 거부했으며, 그의 관심은 ‘무엇이 절대적 참인가’를 묻는 형이상학이 아니라, ‘특정한 진술이 어떤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과정을 거쳐 참으로 승인받게 되었는가’라는 현실적 조건에 있었다. 후기 연구에 이르러 그는 위험을 감수하며 진실을 말하는 고대의 윤리적 실천인 ‘파레시아(parrhēsia)’를 조명함으로써, 권력의 그물망 속에서도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주체적 실천의 길을 열어두었다(Foucault, 2001). 이러한 통찰은 담론 연구가 사회과학 전반의 핵심적인 분석 개념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컨대 Gee(2014)가 구체적인 발화인 소문자 ‘d(iscourse)’와 사회적 실천을 의미하는 대문자 ‘D(iscourse)’를 구별하여 담론의

층위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지적 토대 덕분이었다.

2. 푸코적 사유의 함정: 진리의 권력 환원과 주체의 소멸

담론적 전환의 가장 유력한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푸코의 사유 체계는 탁월한 비판적 통찰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계관과 양립하기 어려운 한계를 품고 있다. 첫째, 방법론 차원의 진리 유예가 존재론 차원의 진리 폐기로 미끄러져 들어갔다는 점이다. 푸코에게 담론 분석의 과제는 진리의 생산 조건을 기술하는 것이었고, 진리 자체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방법론적으로 유보되었다(Foucault, 1980). 이 유보는 그 층위에서 정당하다. 그러나 유보는 수용의 과정에서 부정으로 번역되었다. 진리를 담론 외부에서 물을 수 없다는 방법적 절제가, 담론 외부에는 진리가 없다는 존재론적 주장으로 읽히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기준이 지목하는 층위 이월이며, 푸코 자신의 본의라기보다는 후대 수용사에서 나타난 지적 굴절이다. 이러한 왜곡이 굳어지면 우리 삶이 지향하는 윤리나 정의 역시 또 하나의 권력 담론에 불과하다는 순환 논리에 갇히게 된다. 또한 진리를 궁극적으로 무엇에 근거 지을 것인가라는 물음은 제기될 수 없는 물음으로 처리된다.

둘째, 인간 주체가 ‘말하는 자’라기보다 담론에 의해 점유된 위치(subject position), 곧 ‘말해지는 자리’로 이해되는 경향이다. 여기서도 푸코 자신의 사유 궤적과 이를 수용한 후대 연구 사이의 괴리를 엄밀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후기 푸코는 주체화(subjectivation)와 자기 배려의 문제를 다시 다루면서 주체를 담론의 산물로만 보지 않을 가능성을 남겼다(이혜숙·이영목 역, Foucault, 2011). 그러나 담론 연구의 실제 분석 관행에서 이 후기 작업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주체는 대체로 담론 질서가 할당한 위치로 다루어졌다. 인간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형성되며 특정한 담론 질서 안에서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을 오직 담론의 담지자나 효과물로만 이해할 경우, 인간 고유의 존엄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책임 의식, 도덕적 결단, 회심과 전환의 가능성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셋째, 담론적 전환으로 사회 변화가 지나치게 담론 내부의 재배치와 재맥락화 수준에서 이해되는 경향이 생겼다. 이러한 접근은 인간 역사에 외부로부터 임하는 초월적 계시의 차원을 설명하기 어렵다.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보면 참된 변혁은 단지 담론적 배열의 변화가 아니라, 죄와 거짓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능하다. 그렇다면 담론 연구는 사회 분석의 도구로서는 유용하지만, 궁극적 구원과 존재론적 변혁의 원천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드러난다.

넷째, 윤리와 정의를 비판적으로 말하면서도 정작 그 비판의 기준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자기 긴장을 안고 있다. 이 긴장은 외부에서 부과된 반론이 아니라 전통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실재론 수용도 그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었다(Fairclough et al., 2004).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응답이 제출되었음에도 수용사에서 관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만일 모든 질서와 규범이 권력의 산물이라면, 사회적 불의를 비판하는 윤리적 호소 역시 또 하나의 권력 담론으로만 읽힐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비판은 가능하되 정당화는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다. 담론 연구 스스로의 분석적 날카로움 때문에 자신의 도덕적 토대를 허무는 딜레마에 직면하는 것이다.

3. 기독교 세계관의 응전: 계시적 실재와 샬롬의 언어

기독교 세계관은 담론 연구가 밝혀낸 분석적 통찰을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수용한다. ‘언어가 사회를 짓는 실천’이라는 통찰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말과 글로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는 문화 사명의 수행자라는 사실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한다(창1:28). 실제로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었으며(창1:3), 예언자의 선포는 역사를 흔드는 사회적 실천이었다. 따라서 담론 연구는 현대 사회의 관습과 제도 속에 스며든 구조적 악을 식별하고 공적 책임을 성찰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을 궁극적으로 담론이 생산한 결과물로 볼 수 없다고 선언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며, 부름에 응답하고 책임지는 인격적 주체이다. 푸코식의 권력/지식 도식이 모든 진리를 권력 효과로 환원하는 순간 계시와 초월적 기준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에 맞서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를 모든 담론 위에 세울 것을 요청한다. 담론의 참된 변혁은 수평적 재배치가 아니라 담론 체계 외부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된다(Thiselton, 1992).

담론적 전환은 사회 분석의 예리한 도구로서 유효하지만, 스스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지 못했다. 담론의 궁극적 목적은 권력의 획득이나 배치가 아니라 깨어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shalom)을 실현하는 데 있어야 한다(Poythress, 2009). 그리스도인은 담론들의 경합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담론이 인간을 억압하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 기능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담론을 지배의 무기에서 섬김의 방편으로 전환하는 ‘문화적 청지기적’의 온전한 실천이다.

VI. 기호적 전환: 확장된 의미의 장과 정박점의 문제

기호적 전환의 핵심은 의미가 대상의 본질에서 직접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기호들 사이의 차이와 관계, 그리고 복합적인 의미작용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는 통찰에 있다. 이제 문자와 음성이라는 협소한 틀을 넘어서서 이미지, 공간, 몸짓, 영상, 매체 전반이 의미작용의 대상으로 읽힌다. 인간이 마주하는 모든 문화적 형식이 일종의 텍스트로 해석됨으로써 의미작용의 지평은 획기적으로 넓어진다(신동일, 2023b). 이 장에서는 기호적 전환의 성과를 짚어보는 동시에, 기호 체계가 자율적 질서로 절대화될 때 발생하는 ‘기호의 우상화’와 존재론적 상실의 문제를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1. 사회기호학과 다중양식성: 확장되는 의미 생산의 장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문자 텍스트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기호 체계 속에서 세계를 읽고 해석한다. 기호적 전환의 이론적 기반은 소쉬르의 기호 개념을 사회적 실천의 차원으로 재구성한 사회기호학에서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흐름은 앞 장에서 검토한 비판적 언어학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언어와 통제』의 공저자였던 군터 크레스는 로버트 호지(Robert Hodge)와 함께 사회기호학을 하나의 독립된 연구 프로그램으로 정식화하였고(Hodge & Kress, 1988), 이후 테오 반 리우웬(Theo van Leeuwen)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시각 이미지, 공간 배열, 색채, 시선 처리가 저마다 고유한 ‘시각 문법(visual grammar)’으로 의미를 구성함을 논증하였다(Kress & van Leeuwen, 2021). 할러데이(Halliday, 1978)의 체계기능언어학이 언어를 ‘의미가 생성되는 사회적 자원’으로 규정했다면, 사회기호학은 그 분석 범위를 다중양식성(multimodality)의 의미체계 전반으로 확장한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사회기호학이 소쉬르의 자의성 테제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크레스는 기호가 자의적이지 않고 ‘동기화되어(motivated)’ 있다고 주장했다. 기호란 기호 제작자(sign-maker)가 표현하려는 내용과 그것을 담아낼 표현 수단 사이에서, 특정한 사회적 맥락과 관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택의 결과다. 따라서 기표와 기의의 결합에는 언제나 사회적으로 추적 가능한 동기와 물질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Kress, 2010). 이는 앞 장에서 검토한 자의성 명제의 급진화에 대한 정면 반론에 해당한다. 곧 기호적 전환은 언어적 전환의 논리적 연장에 머물지 않고, 그 핵심 전제 중 하나를 전면적으로 재고하고자 한다.

기호적 전환의 학문적 공헌은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인간의 의미 활동이 음성과 문자에만 국

한되지 않는 다중양식적 실천임을 밝혀냈다. 둘째, 기호 체계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은밀하게 조직하고 자연화한다는 통찰을 통해 현대 문화 읽기의 비판적 틀을 제공하였다. 셋째, 의미를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선택의 산물로 파악함으로써, 복잡한 상징 체계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 도구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기호적 전환은 인간이 살아가는 문화 세계 전체를 해석의 대상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현대 인문학의 중요한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본고가 취하는 계보적 접근의 성격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다섯 가지 전환은 하나가 다음을 낳는 선형적 계승이 아니며, 여기서 보듯 후행하는 전환이 선행하는 전환의 핵심 전제를 반박하기도 한다. 본고가 추적하려는 것은 이러한 굴곡을 지워버린 매끈한 발전사가 아니라, 상이한 출발점과 상호 반론에도 불구하고 이론의 수용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관철되어 온 하나의 완강한 경향성이다. 사회기호학의 사례는 그 경향성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준다. ‘동기화’ 개념이 기호와 실재 사이의 연결을 복원하려 시도했음에도, 그 동기화의 근거가 기호 제작자의 세속적 관심과 사회적 맥락에 국한됨으로써 기호의 정박점은 여전히 사회 내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자의성은 거부되었으나 존재론적 공백은 끝내 메워지지 않은 셈이다.

2. 기호의 이상화와 시뮬라크르: 실재의 소멸

기호적 전환은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온 기호 체계를 낯설게 바라보도록 유도함으로써, 현대 문화의 심층에 깔린 의미 구성의 메커니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기호 체계 자체를 자율적이고 폐쇄적인 질서로 절대화할 때,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각한 존재론적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첫째, 기호 체계를 닫힌 자율적 질서로만 이해할 경우, 의미의 근거는 기호 체계 내부의 차이와 관계망 속에 갇히게 된다. 기호는 외부 실재를 가리키는 지표라기보다 스스로 의미를 생산하는 자기충족적 체계로 둔갑하며, 초월적 근원이나 창조 질서의 차원은 분석과 사유의 지평에서 원천 배제된다. 이는 기호가 창조주를 지시하기를 멈추고 스스로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기호의 이상화’로 이어진다.

둘째, 기호의 정박점이 사회 내부에 한정될 때 기호가 실재를 대체하고 지워버리는 ‘시뮬라크르’의 지평이 열린다. 보드리야르의 논의는 이러한 내재주의 논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호는 실재를 반영하거나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실재와의 관계를 단절한 채 독자적인 유사 현실을 산출한다(Baudrillard, 1994).

물론 보드리야르의 작업이 사회기호학의 필연적 귀결인 것은 아니며, 두 계열은 출발점과 지적

계보를 달리한다. 사회기호학이 기호 제작자의 실천과 사회적 동기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려는 경험적 연구 프로그램이라면, 보드리야르의 사유는 미디어 자본주의의 가상화에 맞서는 급진적 문명 비평에 가깝다. 그럼에도 두 계열이 한 자리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은 기호의 궁극적인 근거를 ‘사회 내부’에서만 끌어 올리려 한다는 공통의 전제 때문이다. 기호가 가리켜야 할 궁극적 실재가 지워지고 기호들의 자의적 유희가 실재를 대체할 때, 의미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공허해진다. 결국 인간은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질서라는 견고한 정박점으로부터 단절된 채, 기호가 조작해 낸 험란한 가상 세계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

셋째, 존재론적 물음의 처리 방식에 나타나는 한계다. 기호학적 분석이 존재론적 근거를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는 결함이 아니다. 개별 분과학문이 자신의 분석 대상과 연구 질문을 방법론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정당하며, 사회기호학을 향해 형이상학적 존재론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범주의 오류일 수 있다. 다만 그 방법론적 한정이 어디까지 유지되는가는 비판적으로 물어야 한다. 인간이 왜 의미를 갈망하는 존재인지, 그 의미의 궁극적 기준과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을 유보하는 것과, 그러한 물음이 기호 체계 내부의 효과로 설명되고 나면 더 이상 해석할 잉여가 남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Vanhoozer, 1998). 앞서 II장에서 제시한 넷째 기준, 곧 ‘체계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경험적 차원에서 유보하는가, 아니면 존재론적 차원에서 원리적으로 배제하는가’라는 물음이 바로 여기서 비평의 잣대로 작동한다.

방법론적 유보를 넘어 원리적 배제로 나아갈 때, 기호 체계는 두 가지 심각한 난점에 봉착한다. 하나는 초월적 개입에 대한 설명 불가능성이다. 성육신과 계시는 인간이 구성한 문화적 문법을 넘어서는 초월적 사건이다. 그러나 기호 체계를 자족적 총체로 전제하는 이론 틀 안에서 이러한 사건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되는 데 그치지 않고,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환영으로 치부되고 만다. 다른 하나는 기호가 창조 질서의 실재와 맺은 끈을 상실함으로써 마주하는 ‘존재론적 고립’이다. 기호가 스스로 의미를 완결 짓는 자기충족적 질서로 군림할 때, 이미지와 상징은 초월적 진리를 지시하기보다 오히려 실재를 가리는 장벽으로 변질된다. 그 결과 인간은 궁극적 실재와의 실존적 접촉을 차단당한 채 기호가 직조한 매끄러운 표면 질서 속에 갇히게 된다. 결국 기호적 전환은 문화적 의미작용을 읽어내는 탁월하고도 풍성한 분석 틀을 제공했는지언정, 존재의 기원과 목적을 묻는 궁극적 지평에서는 형이상학적 빈곤을 드러낸다.

3. 기독교 세계관의 응전: 창조 질서의 표지로서의 기호

기호 체계 속의 규칙성과 질서를 읽어내는 작업은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창조 세계의 질서를 분

별하는 유의미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공간, 기호, 몸짓 등 인간의 다양한 표현 양식 속에 이데올로기적 질서가 스며있다는 지적은 정당하며, 디지털 환경과 시각문화가 지배적인 오늘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데 긴요한 안목까지 제공한다. 그러나 기호들의 질서를 자족적인 폐쇄 체계로만 절대화할 때, 기호는 더 이상 창조 세계를 증언하는 표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숭배하게 만드는 시뮬라크르로 전락한다.

언어와 기호가 지닌 규칙성은 우연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에 그치지 않고, 온 우주를 섭리로 붙드는 하나님의 질서가 투영된 ‘일반 은총’의 영역이다(Poythress, 2009). 어거스틴(Augustine)은 《고백록》 첫 장에서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만드셨으며,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쉬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Augustine, 1960: I.1),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을 지니도록 창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칼뱅(Calvin) 역시 피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theatrum gloriae Dei)’으로 이해하면서(Calvin, 1960: I.v.8), 모든 가시적 기호와 피조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창조주를 가리키는 이정표여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 관점에서 모든 기호는 자족적인 의미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창조주를 향해 열려 있는 표지로서의 본문을 지닌다.

그런 까닭에 기독교 세계관은 의미의 궁극적 근원을 기호 내부의 형식적 배열과 차이만으로 환원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경계한다. 기호가 실재를 대체하거나 초월적 기준을 몰아내는 순간, 그것은 비판적 해석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우상의 자리를 점하게 되기 때문이다. 의미는 인간이 기호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성육신적 개입을 통해 비로소 온전한 기준과 충만함을 얻는다(Thiselton, 1992).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사명은 세상의 기호 속에 은폐된 왜곡과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일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세속적 기호 체계가 결코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의 서사를 신앙적 실존과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데 있다. 기호가 실재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근원적인 공허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모든 유한한 기호가 기대어 서 있는 ‘말씀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기호의 정박점을 사회 내부에서만 찾음으로써 발생하는 존재론적 위기는, 출발점을 달리하면서 한층 더 급진적으로 치달은 ‘포스트모던 전환’에서 한층 더 치열하고도 파괴적인 형태로 되풀이된다.

VII. 포스트모던 전환: 해체된 급진화와 소여 없는 인간

포스트모던 전환은 앞선 흐름이 축적해 온 문제의식을 가장 급진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인 국면이라 할 수 있다. 구조주의가 의미를 기호 체계 내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비판적 언어학과 담론 연구가 언어의 권력성과 사회적 실천성을 부각시켰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어가 객관적 실재를 반영한다는 근대적 전제 자체를 해체하였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가 포스트모던 조건을 ‘거대 서사(grand narratives)에 대한 불신’으로 규정했을 때(Lyotard, 1984), 이는 단순한 인식론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진리, 의미, 인간 이해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지각변동을 예고한 것이었다. 이 장에서는 포스트모던 언어관의 핵심 주장과 그것이 인간론 및 진리론에 미친 파급 효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그 존재론적 한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1. 거울에서 영토로: 실재의 해체와 수행적 정체성의 위기

모더니즘 시대에 언어가 외부 실재를 비추는 ‘거울’ 혹은 실재에 도달하기 위한 ‘지도’로 이해되었다면, 포스트모던 국면에서는 언어로 실재를 구성하고 나아가 대체하는 ‘영토’ 그 자체로 읽는 독법이 유효해졌다. 다만 본고가 ‘포스트모던 언어관’이라 부르는 것은 데리다, 리오타르, 보드리야르, 버틀러의 입장을 합산한 결과가 아니다. 이들은 출발점도 결론도 서로에게 쉽게 환원되지 않으며, 본고 역시 이들을 단일한 존재론으로 묶지 않는다. 오히려 아래에서 확인하듯 이들 중 여럿은 자신에게 덧씌워진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독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도 했다.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용의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관철되어 온 하나의 공통된 경향, 곧 언어를 실재의 자리에 올려놓는 독법의 형식이다. 이것으로부터 언어는 현실 효과를 생산하고 의미를 조립하는 자율적 장치로 군림하게 된다.

데리다의 해체론은 이러한 전환에 철학적 언어를 제공했다. 그에 따르면 텍스트는 저자의 의도나 외부 실재와 투명하게 연결되지 않으며, 의미는 끊임없이 지연되고 차연(différance)의 운동 속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로 남는다(Derrida, 1976). 그러나 해체론을 단순히 실재의 부정이나 허무주의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데리다는 ‘텍스트 바깥은 없다’라는 자신의 유명한 명제가 텍스트 외부에 물리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독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그것은 곧 ‘맥락 바깥은 없다’는 의미임을 밝힌 바 있다(Derrida, 1988). 더 나아가 그는 해체가 무차별적인 파괴가 아니라 언제나 타자와 정의(justice)를 향해 열려 있는 윤리적 운동이며, 역사적이고 가변적

인 실정법(law)은 해체될 수 있으나 그 법을 비판하는 궁극적 기준인 ‘정의 자체’는 결코 해체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Derrida, 1992).

‘정의는 해체될 수 없다’는 명제는 해체론의 내적 논리가 스스로 도출해 낸 귀결이라기보다, 해체론이 윤리적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해야만 했던 ‘철학적 전제’에 가까웠다. 해체라는 끊임없는 비판 운동이 단순한 허무주의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그 운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해체 불가능한 절대적 지점’이 반드시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리다는 그 정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근거하는지 끝내 밝히지 않은 채 남겨두었다. 그는 그것을 ‘메시아적인 것(the messianic)’ 혹은 ‘도래할 정의(justice to-come)’라는 부정신학적 상징으로 부르며, 그 실제적 내용을 구체화하기를 원리적으로 거부하였다. 요컨대 급진적인 해체론조차 자신을 지탱할 초월적 정박점 없는 윤리적 선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다만 그 자리를 끝없이 비워두는 방식을 취했을 뿐이다. 따라서 데리다의 이러한 시도는 본고의 비판에 대한 반례가 아니라, 오히려 초월적 정박점의 필수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학계와 대중 지성사의 수용 과정에서 유통되고 소비된 것이 데리다가 고뇌했던 ‘해체 불가능한 정의’가 아니라, 모든 가치와 의미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무한한 확정 불가능성’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용사적 과정으로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존재론적이고 보편적인 질문은 “누가 의미와 담론을 장악하는가”라는 권력투쟁적 질문으로 대체되었다. 진리는 검허하게 발견되는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효과에 불과하며, 그 구성은 곧 지배와 저항의 권력 게임으로 축소되었다. 데리다가 끝내 비워둔 초월의 자리는 진정한 응답을 얻지 못한 채 세속화된 담론경쟁 속에서 망각되고 만 것이다.

이는 인간 정체성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흔든다. 포스트모던 사유 속에서 인간은 고정된 본질을 지닌 주체가 아니라, 언어적 혹은 담론적 행위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유동적 정체성’으로 해체된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gender performativity)’ 이론은 이러한 경향의 정점을 보여준다. 버틀러에게 젠더란 선재하는 자연적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모방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빚어지는 ‘수행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Butler, 1990).

여기서 수행성이란 주체가 매일 아침 옷을 골라 입듯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발적 연출이 아니다. 버틀러는 그러한 자유주의적, 혹은 대중적 독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수행성이란 오히려 주체가 사회적으로 ‘인식 가능한 존재’가 되기 위해 강요받는 규범의 강제적 반복이며, 그 반복의 규율에 부응하지 못한 몸들은 정상적 삶의 영역 바깥으로 추방된다는 사실을 주목했다(Butler, 1993). 이런 점에서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은 주체의 무한한 해방을 약속하는 ‘자유의 이론’이라기보다, 지배적 규범의 관습적 폭력을 드러내는 ‘제약의 이론’으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버틀러의 이론을 이처럼 엄밀하게 읽어낼수록, 본고가 제기하는 비판적 논점은 역설적으로 더욱 선명해진다. 수행성을 ‘규범의 제약’으로 해명하는 엄밀한 독해조차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도권을 ‘개인의 의지’에서 ‘사회의 권력 규범’으로 이전해 놓았을 뿐, 인간 존재의 궁극적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존재론적 물음에는 여전히 침묵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개인의 자의적 선택이든 관습적 규범의 강제적 반복이든, 양자 모두 인간 존재에게 앞서 부여된 거룩한 ‘창조적 소여 (Creational Givenness)’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기독교 인간론이 문제 삼는 지점은 인간이 마음대로 자신을 설계한다는 피상적 주장이 아니라, 인간 정체성의 기저에 놓인 ‘창조적 소여’ 자체를 거부하는 무신론적 전제다. 버틀러가 후기 연구에서 인간의 근원적 취약성과 상호의존성, 그리고 타자를 향한 책임을 성찰하며 윤리학적 토대를 재구축하려 애쓴 것도(Butler, 2005) 바로 이러한 존재론적 공백이 자신에게도 결코 피해 갈 수 없는 난제였음을 보여준다.

‘소여 없는 인간론’이 사회적 진실로 승인받게 될 때 초래하는 파장은 단지 관념의 유희에 머물지 않고 공적 영역의 실존적 삶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다. 인간이 성별과 인격, 나아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존엄한 생명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인간 존재의 기본 조건들이 창조 질서의 실재가 아닌 가변적인 권력 담론의 협상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 교육 현장과 법제화 과정, 그리고 생명윤리 논쟁 전반에 걸쳐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실존적 갈등을 낳은 구조적 진원지가 되고 있다.

2. 포스트모던 언어관의 한계: 진리론과 인간론의 붕괴

포스트모던 언어관은 근대의 억압적 제도와 배제적 권위를 해체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진리를 파악하는 인식론적 매개의 문제를 진리 자체의 존재론적 성립 문제로 혼동하고 비약시켰다는 점이다. 유한한 인간이 언어를 매개로 진리를 알아간다는 인식론적 성찰은 진리의 보편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어를 매개로 진리를 인식한다’는 한계 인정이 ‘언어가 진리를 구성한다’거나 ‘언어 바깥에는 진리가 없다’는 식의 급진적 존재론으로 비약할 수는 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범주의 경계를 넘어 언어 체계 자체를 진리의 생산자로 절대화하였고, 그 결과 진리는 실재적 정합성을 상실한 채 담론 권력들의 세력 다툼이 낳은 우발적 부산물로 전락하였다. 리오타르가 포스트모던 조건을 ‘거대 서사에 대한 불신’으로 규정했을 때(Lyotard, 1984), 이는 일차적으로 시대적 의식 지형에 관한 기술적 진단에 가까웠으나, 지성사적 수용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적 진단은 어느새 ‘보편적 진리를 거부하라’는 규범적 강령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해석학의 위기는 ‘신학적 위기’의 필연적 반영이다(Vanhoozer, 1998). 하나님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혹은 ‘하나님의 죽음’ 선언이 의미의 정박점을 이루는 존재론적 보증을 제거함으로써, 진리뿐 아니라 저자와 텍스트 개념 전체를 불안정하고 공허한 유희 속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언어관에 대한 성찰은 개별 이론에 대한 학술적 선호나 지적 유행의 차원을 넘어, 진리의 존재 가능성을 어디에 정초할 것인가를 묻는 진리론의 근본 질문과 직결된다.

둘째, 인간 존엄의 근거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여(the given)’가 아니라 인간 사회가 구축하는 ‘구성(the constructed)’의 결과물로 치환했다는 점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여기서 비판의 초점은 인간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기획한다는 식의 주장이 아니다. 인간의 정체성이 역사적 담론과 사회적 규범이 짜내는 구성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때 인간 존엄의 형이상학적 토대는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이다. 선제하는 창조적 소여가 증발한 자리에서 존엄은 오직 외부의 권력 체계가 임의로 ‘승인하고 부여한 자격’으로 격하되며, 이처럼 조건부로 부여된 가치는 권력을 쥔 주체의 필요와 시대적 편익에 따라 언제든 축소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론적 기반을 잃은 채, 지배 담론들의 문법이 임의로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는 피동적 효과물로 전락하고 만다.

셋째,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윤리의 기초를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언어의 다의성을 극단화하고 텍스트를 자의적으로 해체하게 되면, 법적·제도적 판단의 토대가 되는 구체적 실재와 역사적 무게마저 모호해진다. 이 경우 법은 부당하게 억압받는 생명과 약자의 고통을 응답하는 장치가 아니라, 현란한 수사와 해석 기술이 실재를 압도하는 유희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결국 포스트모던 언어관의 과잉은 철학적 논쟁에만 머물지 않고, 고통받는 약자를 지키며 공동체 질서를 유지해 온 윤리적 정당성의 기반 자체를 잠식하는 결과를 낳는다.

넷째, 인간을 고유한 본질이 부재한 유동적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포스트휴머니즘과 트랜스휴머니즘이 추동하는 급진적 인간 해체의 길마저 열어주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인간에게 환원 불가능한 본질이 없으며 언제든지 해체하고 재조립될 수 있는 구성물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유는 인간을 손쉽게 데이터와 조작 가능한 정보 단위로 환원하는 기술주의적 시각과 결탁한다. 그 결과 인간의 존엄성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침해할 수 없는 내재적 가치가 아니라, 기술적 유용성과 재설계 가능성이라는 실용주의적 계산 속에서 저울질된다. 이처럼 포스트모던 언어관의 급진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지닌 존재론적 존엄과 미래 자체를 위협하는 실존적 파국으로 치닫는다.

3. 기독교 세계관의 대응: 왜 이것은 진리론과 인간론의 문제인가

포스트모던 언어관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의 비판은 한 시대의 유행하는 철학 사조나 지적 풍토를 다루는 평론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언어를 실재가 창조되는 절대적 원천으로 절대화하는 순간, 진리는 더 이상 피조 세계에 부여된 거룩한 질서가 아니라 권력과 해석이 빚어낸 부산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인간 역시 창조 질서 안에 뿌리내린 인격적 실재가 아니라, 가변적인 담론 체계가 임의로 조립해 내는 유동적 주체로 격하된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언어관을 비판하는 작업은 훼손된 진리의 존재론적 토대를 회복하는 작업이며, 나아가 인간 존엄과 정체성의 근거를 지켜내기 위한 존재론적 응전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진리를 인간이 사후적으로 직조한 인위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인간에게 은혜로 주어진 초월적 실재로 고백한다(요 14:6). 언어의 지평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순간, 인간의 언어는 진리를 증언하는 통로가 아니라 진리의 접근을 가로막고 왜곡하는 폐쇄된 감옥으로 변질된다(Poythress, 2009). 언어가 지닌 역동적인 수행성과 사회적 구성력을 밝혀낸 포스트모던 해석학의 통찰 자체는 정당하게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의미의 초월적 근거를 허물어뜨리고 언어를 인간의 자의적 유희나 권력 투쟁의 도구로 환원할 때,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비판적 개입이 불가피하다.

인간은 담론 체계가 생산한 가변적인 효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체다(창 1:27). 인간의 참된 존엄은 기호적 수행의 숙련도나 사회적 규범의 임의적 인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목적과 선재하는 소여에서 비롯된다. 포스트모던 언어관이 실재와 진리, 그리고 인간 본질의 자리를 해체할 때, 이는 성경적 계시와 인간 실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된다. 본고가 추적해 온 다섯 전환의 논리적 급진화는, 마침내 이 포스트모던 국면에 이르러 언어를 진리와 창조 질서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킴으로써 인간 이해의 기반 자체를 집어삼키는 위태로운 지점에 도달하고 말았다.

VIII. 기독교언어학적 재구성: 로고스, 성육신, 살롬

본 연구는 20세기 이후 현대 언어사상을 관통한 다섯 가지(언어적, 비판적, 담론적, 기호적, 포스트모던) 전환을 차례로 살피고, 각 전환이 남긴 학문적 공헌과 존재론적 한계를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서로 다른 지적 계보에서 출발한 이 전환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언어의 부분적 속성에 관한 ‘방법론적 명제’가 언어 전체에 관한 ‘존재론적 명제’로 부당하게 비약되는 일련의 왜곡된 경향이었다. 여기서는 앞선 논의를 종합하면서, 언어를 창조, 계시, 성육신, 살롬의 질서 안에 다시 정착시키는 기독교언어학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전환적 사유의 공헌과 누적된 한계

각 전환은 언어의 특정한 속성을 밝혀내는 데 지대한 공헌을 남겼다. 구조주의 언어관은 언어의 체계성과 관계적 질서를, 비판적 언어학과 담론 연구는 언어의 권력성과 사회적 실천성을, 사회기호학은 의미 형성의 다중양식적 확장을, 포스트모던 사유는 언어가 지닌 역동적 구성 기능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통찰들은 ‘일반 은총’의 지평에서 충분히 긍정할 수 있는 학술적 자산이며, 기독교언어학은 이를 비판적으로 여과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전환이 밝혀낸 언어의 ‘부분적인’ 속성을 언어 전체에 관한 ‘총체적’ 설명으로 비약할 때 심각한 존재론적 왜곡이 발생했다. 구조주의는 언어를 닫힌 자율적 체계로 가두면서 말과 실재 사이의 연결 고리를 느슨하게 만들었고, 비판적 언어학과 담론 연구는 진리와 윤리의 초월적 정박점을 약화시켰으며, 사회기호학은 기호 자체를 자기완결적 의미 생산자로 절대화되는 위험을 낳았다.

나아가 포스트모던 언어관에 이르러서는 언어가 실재를 반영하는 ‘거울’이나 ‘지도’가 아니라 실재를 임의로 구성하고 대체하는 ‘영토’로 전도됨으로써, 진리의 보편성과 인간의 존엄, 그리고 사회윤리의 기초가 동시에 흔들리는 파멸적 귀결에 도달하였다. 언어가 창조 질서와 계시, 그리고 존재의 궁극적 근원으로부터 분리될수록, 언어는 실재를 밝히기보다 은폐하고,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분열시키며, 진실을 증언하기보다 해석 권력의 투쟁 도구가 전락하였다. 이러한 귀결은 개별 이론가들의 학술적 기획 그 자체라기보다, 그들이 스스로 설정했던 엄밀한 방법론적 제한선이 지성사의 수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진 내린 결과라 할 수 있다.

2. 기독교언어학의 세 가지 토대: 로고스, 성육신, 살롬

이러한 존재론적 붕괴를 극복하기 위한 기독교언어학의 대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신학적 토대에 정초되어야 한다. 첫째, ‘로고스 중심성’이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언어의 궁극적 기원과 정박점은 스스로 계시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에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 1:1)는 선언은 언어를 단순한 정보 전달의 기술이나 담론 권력의 투쟁 수단이 아니라, 존재의 실재를 드러내고 인격적 관계를 창출하며 거룩한 진리를 증언하는 선험적 매개로 조망하게 한다(Poythress,

2009). 언어는 세속적 구성주의가 상정하듯 인간이 자의적으로 세계를 조립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통방식에 그 원형을 두고 있으며, 창조 질서와 계시의 빛 아래에서 비로소 고유한 의미를 갖는 은혜의 선물이다.

둘째, ‘성육신적 언어관’이다. 구조주의가 열어놓은 기호의 자의성 테제와 포스트모던 사유가 극단화한 차연의 운동은 언어와 실재 사이의 유기적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성육신 사건’ 안에서 말씀과 실재의 근원적 연합과 구체적 성취를 목도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라는 사건은 언어가 단지 대상을 지연시키고 기호의 매끄러운 표면만을 배회하는 체계가 아니라, 참된 실재를 드러내고 역사 속에 구체적인 몸과 실천으로 성육화될 수 있는 신비로운 통로임을 웅변한다. 언어는 건조한 정보 교환을 넘어 관계를 회복하고 변혁시키는 인격적인 사건이며, 그 온전한 원형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이다(Thiselton, 1992). 성육신적 언어관은 흩어진 언어를 다시 진리, 책임, 그리고 삶의 실천과 결속시키며, 인간의 말이 구체적인 실재를 지시하고 타자를 향해 온전히 책임지 거룩한 윤리적 행위임을 일깨운다.

셋째, ‘샬롬’을 지향하는 언어의 목적론이다. 기독교 언어관이 지닌 실천성은 언어가 단순히 지배 담론의 모순을 비판하는 기능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다. 언어는 하나님의 계시를 매개하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을 일구어내는 구속적 통로다. Vanhoozer(2010)가 정립한 ‘하나님의 소통적 행위(divine communicative action)’로서의 언어관은 이러한 목적론적 지향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 행위는 진리의 진술, 타자의 존엄에 대한 인정, 공동선의 추구, 은혜의 전달, 복음의 증언 등을 모두 포괄하는 존재론적 책임을 짊어진다. 이는 ‘고운 말 쓰기’ 수준의 언어 도덕주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를 지으셨듯 인간의 언어 역시 공동체를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샬롬의 도구가 참여하는 실천이다.

3. 통전적 기독교언어학: 분별과 회복의 길

기독교언어학은 세속 언어학의 성과를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폐쇄적인 기획이 아니다. 본 연구가 견지하는 태도는 전면적 부정이나 맹목적 배척이 아닌 엄밀한 ‘분별’에 있다. 20세기 이후 언어를 둘러싼 전환적 사유들이 밝혀낸 경험적이고 분석적인 통찰은 일반 은총의 산물로서 적극 수용하되, 그것이 진리와 계시, 창조 질서와 인간의 본질적 존엄을 대체하는 총체적 이데올로기로 군림할 때 기독교적 비판이 단호하게 개입해야 한다. 기독교언어학은 전환적 사유들을 반박하기 위한 방어적 변증에 머물지 않는다. 세속 이론의 유효한 성과를 선택적으로 품어 안고, 이를 더 심오한 차원의 존

재론적, 혹은 신학적 토대 위에서 재배치하는 ‘통전적 언어학(holistic linguistics)’로 정의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통전적 지향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언어의 구조성, 사회성, 권력성, 다중양식성을 면밀하게 탐색하되, 그 모든 것을 궁극화하지 않고 로고스의 빛 아래서 정교하게 재배치한다. 둘째, 언어를 진리와 계시로부터 인위적으로 절연시키려는 분리주의를 극복하고, ‘성육신적 언어관’에 기초하여 말과 실재, 언어와 삶이 일치하는 회복의 길로 나아간다. 셋째, 언어를 인간 해방의 수단으로 보는 한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증언하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롬’의 평화를 실현하는 화해의 통로로 삼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언어학은 기존 언어학을 부정하는 ‘반(anti)언어학’이 아니라, 현대 언어사상이 길을 잃고 놓쳐버린 궁극적 존재론과 형이상학적 정박점을 온전히 보완하고 완성하는 구축적 학문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결국 언어의 참된 미래는 해체의 반복이나 자의적 유희에 있지 않고, 로고스 안에서 진리와 사랑,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 결속시키는 회복의 지평에 열려 있다. 언어가 더 이상 선재하는 실재를 향하지 않고 자기증식하는 해석과 권력의 폐쇄회로에 갇힐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담론전쟁의 부산물로 축소되고, 공동체는 진실의 공유가 아닌 이해관계의 투쟁장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러한 문명사적 위기 앞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로고스 중심의 언어 회복을 통해 언어의 기원과 목적, 그리고 인간의 윤리적 책임과 희망을 다시 묻는다. 오직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히1:3) 인간의 언어는 실재를 투명하게 밝히고, 공동체를 생명으로 묶어내며, 거룩한 진실을 증언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신동일 (2018). 언어학적 전환, 비판적 언어학 전통, 그리고 비판적 담론연구의 출현. **질적탐구**, 4(3), 1-42.
- 신동일 (2020). 담화/담론연구의 이론적 토대 탐색: 학제간/통합적 연구방법론으로 확장하며. **질적탐구**, 6(1), 1-40.
- 신동일 (2022). **담론의 이해: 담화, 담론적 전환, 비판적 담론연구**. 책세상.
- 신동일 (2023a). ‘비판성’의 새로운 탐색: 비판적 존재론과 브리콜라주 연구활동의 관점에서. **질적탐구**, 9(1), 35-70.
- 신동일 (2023b). **미학적 삶을 위한 언어감수성 수업**. 필로소픽.
- 신동일 (2025). 비판적 언어감수성 교육의 토대와 교육적 가능성 탐색. **사회언어학**, 33(3), 209-243.
- 양성만·홍병룡 역 (2007). **창조 타락 구속**. Wolters, A. M. & Goheen, M. W. (2005).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IVP.
- 오생근 역(2003). **감시와 처벌**. Foucault, M. (1975). *Discipline and punish*. 나남.
- 이정우 역(2000). **지식의 고고학**. Foucault, M. (1969). *L’archéologie du savoir*. 민음사.
- 이혜숙·이영목 역 (2011). **성의 역사 3: 자기배려**. Foucault, M. (1984). *Le souci de soi*. 나남.
- Augustine. (1960). *Confessions*. Trans. Pine-Coffin, R. S. Penguin. (Original work published 397)
- Calvin, J. (1960).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Battles, F. Lewis in McNeill, J. T. (Ed.). (1960).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 Westminster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559)
- Baudrillard, J. (1994). *Simulacra and simulation*. Trans. Glaser, S. Faria.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1)
- Bhaskar, R. (2008). *A realist theory of science*. Routledge. (Original work published 1975)
- Butler, J. (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 Butler, J. (1993).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ex”*. Routledge.
- Butler, J. (2005). *Giving an account of oneself*. Fordham University Press.
- Derrida, J. (1976). *Of grammatology*. Trans. Spivak, G. Chakravort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67)
- Derrida, J. (1988). *Limited Inc*. Trans. Weber S. & Mehlman, J.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Derrida, J. (1990/1992). Force of law: The “mystical foundation of authority.” In Cornell, D., Rosenfeld, M. & Carlson D. G. (Ed.). (1990/1992). *Deconstruction and the possibility of justice* (pp. 3-67). Routledge. (Original work published 1990)

- Fairclough, N.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Polity Press.
- Fairclough, N. (2011). *Language and power* (3rd ed.). Routledge.
- Fairclough, N., Jessop, B. & Sayer, A. (2004). Critical realism and semiosis. *Journal of Critical Realism*, 3(1), 23-42.
- Foucault, M.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in Gordon, C. (Ed.). Pantheon Books.
- Foucault, M. (2001). *Fearless speech*. in Pearson, J. (Ed.). Semiotext(e).
- Fowler, R., Hodge, B., Kress, G. & Trew, T. (1979). *Language and control*. Routledge & Kegan Paul.
- Gee, J. P. (2014). *An introduction to discourse analysis: Theory and method* (4th ed.). Routledge.
- Halliday, M. A. K. (1978).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Edward Arnold.
- Hodge, R. & Kress, G. (1988). *Social semiotics*. Polity Press.
- Jameson, F. (1972). *The prison-house of language: A critical account of structuralism and Russian form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ress, G. (2010). *Multimodality: A social semiotic approach to contemporary communication*. Routledge.
- Kress, G. & van Leeuwen, T. (2021).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visual design* (3rd ed.). Routledge.
- Lyotard, J.-F. (1984).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Trans. Bennington G. & Massumi, B.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9)
- Poythress, V. S. (2009).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Language--A God-centered approach*. Crossway.
- Poythress, V. S. (2015). *Redeeming mathematics: A God-centered approach*. Crossway.
- Saussure, F. de. (1983).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Trans. Harris, Roy. Duckworth. (Original work published 1916).
- Thiselton, A. C. (1992). *New horizons in hermeneutics: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forming biblical reading*. Zondervan.
- Trew, T. (1979). Theory and ideology at work. in Fowler, R., Hodge, B., Kress, G. & Trew T. (Ed.). (1979). *Language and control* (pp. 94-116). Routledge & Kegan Paul.

Vanhoozer, K. J. (1998).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The Bible, the reader, and the morality of literary knowledge. Zondervan.

Vanhoozer, K. J. (2010). *Remythologizing theology: Divine action, passion, and authorship*. Cambridge University Press.

Wittgenstein, L. (1953).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Trans. Anscombe, G. E. M. Blackwell.

언어적 전환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기독교언어학 관점에서의 계보적 비판

From the Linguistic Turn to Postmodernism: A Genealogical Critique from Christian Linguistics

신 동 일 (중앙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20세기 이후 현대 인문학의 근간을 이룬 다섯 가지 패러다임 전환—언어적, 비판적, 담론적, 기호적, 포스트모던 전환—을 검토하고 이를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토 대상은 개별 사상가의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그 개념들이 인문·사회과학에 수용되고 제도화된 경로다. 다섯 전환은 동일한 층위의 학문적 단위가 아니며, 본고가 사용하는 ‘계보’는 역사적 계승의 서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하나의 논리적 이행을 추출한 이념형적 재구성이다. 수용의 근거는 이론가들이 자신에게 부과된 급진적 독법을 명시적으로 반박해야 했던 텍스트들에서 확보한다. 각 전환은 언어를 정보 전달의 도구를 넘어 인식의 조건이자 사회적 권력의 장으로 밝혀냄으로써 언어의 사회성과 실천성을 규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과를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수용하되, 부분적 통찰이 언어 전체에 관한 총체적 설명으로 확대되는 지점을 비판한다. 이 경계를 판별하기 위해 전칭화, 층위 이월, 자기지시성, 원리적 배제라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실제 접근의 매개를 주장하는 인식론적 구성주의와 실제의 담론적 산출을 주장하는 존재론적 구성주의를 구분한다. 비판의 대상은 후자다. 특히 본 연구는 포스트모던 전환을 상이한 이론가들의 입장을 합산한 것으로 다루지 않고, 언어가 실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하나의 공통된 수용 국면으로 한정한다. 분석 결과 확인되는 것은 이론가들의 주장이 아니라 그들이 설정한 제한선이 수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진 양상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창조와 성육신에 기초한 ‘로고스 중심의 기독교 언어학’을 제안한다. 이는 개별 언어학 분과의 경쟁 이론이 아니라 언어 연구의 전제와 목적을 성찰하는 메타 이론적 층위이며, 언어의 구조성과 사회성에 관한 분석적 성과를 로고스의 빛 아래 재배치함으로써 비판을 해체가 아니라 회복으로 이끄는 통전적 언어 탐색을 지향한다. 언어는 인간의 구성물이 아니라 위탁된 선물이며, 화해와 살생을 이루는 은총의 매개로 회복되어야 한다.

주제어: 기독교세계관, 언어적 전환, 비판적 언어학, 담론적 전환, 기호적 전환, 포스트모더니즘, 구성주의, 기독교언어학